



2019년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

배움은 성장의
리듬들입니다 

| 발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작 | 아시아투데이

배움은
성장의
리듬들입니다 

INTERVIEW

좌절된 꿈에 희망의 날개를 달다	04
김현태 (학사, 문헌정보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커피 한 잔과 함께 되찾은 삶	12
강지숙 (전문학사, 관광식음료) 학점은행제 특별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	20
이동철 (학사, 법학) 독학학위제 특별상	

201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학습사례

성적우수 및 특별상 수상자 학습사례	28
---------------------------	----

Interview

01



Dream

좌절된 꿈에 희망의 날개를 날다

장애를 딛고 발견한 새로운 미래

장애인의 삶에는 제한이 많지만,
그 제한에 갇혀 있다면 장애에 굴복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김현태 (학사, 문헌정보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66
악몽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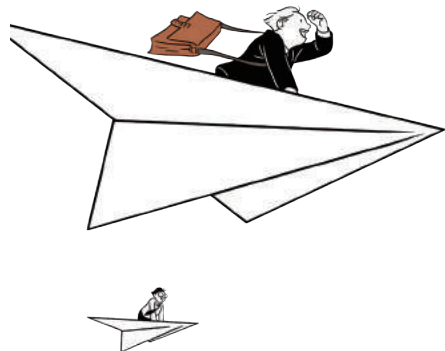
ROTC 육군 장교 출신의 초등학교 체육 부장교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학생들과 운동장을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뒤따라온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얻은 중증 뇌병변 장애. 하루아침에 자유롭던 몸은 물론 말하는 것까지 불편해졌다. 날개 꺾인 새처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악몽 같은 사고였다. 하지만 김현태(43세) 학습자는 악몽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날아갈 방법을 찾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새로운 꿈의 날개를 단 그를 만났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경북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뒤로는 담임 업무 등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사직하고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합격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셨나요?

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서 교사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받고 일할 수 있겠다 싶어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할 방법을 찾던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발견했어요. 그곳을 통해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제게 꼭 필요한 제도였지요. 험한 산을 오르다 귀한 산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일과 병행하기 위해 주말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수업을 듣기 위해 매주 주말, 경기도 안양까지 편도로 3시간 30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해야 했죠. 금요일 저녁에 미리 안양으로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에는 온종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돌아오는 교통편이 없어 또 하룻밤을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하는 일정이지요. 이것을 매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먼 길을 오가며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는 등 힘들 때가 많았지만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서 교사가 되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학교의 배려로 학습 도우미가 배정되었습니다. 학습 도우미분이 강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등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제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먼 친척보다도 친밀하게 지냈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만난 후 삶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저는 성취욕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늘 성장하기를 꿈꾸고 성장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애가 생겼을 때는 불편한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면 장애인인 현실이 더 악몽 같아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시 성장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취감도 충족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입학 축하드립니다.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네요.

학점은행제 과정을 마치고 문헌정보학사 학위와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룬 것은 학위와 자격증 취득, 대학원 입학뿐만이 아닙니다. 문헌정보학적 소양 덕분에 지방경찰청 지청의 검찰 시민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민 참여 혁신단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단으로서 공약 이행 결과 점검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식을 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장애인의 삶은 불편하고 제한이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에 갇혀 있다면 장애에 굴복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불편한 몸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학점은행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건강하던 시절의 꿈은 장학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교직 생활과 교육행정 공무원 재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학습은행제를 통해 체감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배움의 기쁨을 학생들에게 널리 전하겠습니다.

66

늘 성장하기를 꿈꾸고
성장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학습자 수기

김현태(학사, 문헌정보학)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ROTC 육군 장교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체육부장을 맡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학생들과 운동장을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뇌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활동하는 것이 행복했고 교육자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사가 되고 싶어 영어 교사 자격증,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특수 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도 했지요. 경험을 쌓으려 해외 소재의 한국 학교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 온 장학사의 꿈을 중증 장애로 인해 사직하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지만,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잠재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교사가 될 길을 열어 줄 학점은행제를 찾아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 사서 교육 전공에 진학해 졸업하면 사서 교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 후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상대적으로 교육 부담이 덜한 사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두 개의 학사 학위와 한 개의 석사 학위가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사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말 수업을 듣기 위해 안양에 있는 학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위해 집과 안양을 오가는 동안에는 옷을 갈아 입을 수도,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먼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도 다반사였지요. 필기도 불가능해 학습 도우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도 해결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몸이 강직되고 떨리기 일쑤였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했지만,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증 장애를 얻어도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곳곳이 노력한 끝에 2018년 8월, 드디어 문헌정보학사 학위와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키운 문헌에 대한 넓은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은 저 자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가정은 물론 사회 공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독서를 지도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했고, 한 아이가 모범생으로 인정받아 학급 인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아내를 도와 기출 문제를 분석했고, 결국 아내는 목표했던 공립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찰 시민 위원,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시민 참여 혁신단,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단 등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습득한 지식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니 자아실현의 기쁨이 뒤따랐습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된 교육대학원 사서 교육 전공 입학 전형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하여 다시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장학사라는 꿈보다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방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점은행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새로운 꿈을 꾸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꺼져가고 있던 제 꿈의 불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Life

커피
한 잔과
함께
되찾은 삶



잠들어 있던 성장의 가능성을 깨우다

우울했던 삶에 목표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용기를 낸다면,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일 거예요.

[강지숙 (전문학사, 관광식음료)
학점은행제 특별상]



66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 준 학점은행제
99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에 있었던 수많은 여학생을 노래한 문정희 시인의 시 제목이다. 여기 그 여학생 중 한 명이었던 강지숙(47세) 학습자가 있다. 건강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결혼한 이후로는 아내와 엄마로만 살아왔다. 자신의 성취는 배제하고 주변의 성장을 바라보기만 하는 삶에 지친 마음은 가정불화로 이어졌다. 결국 그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로 했다. 뒤늦은 시작이 절대 쉽지 않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드디어 바리스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한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커피협회에서 바리스타 2급 실기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시절, 생각지 못한 병으로 1년 넘게 병원에만 지내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었는데, 15년 동안 그 꿈을 접어두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꿈을 실현할 희망이 생겼어요.

왜 커피 공부를 선택하셨나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커피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고 기술이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신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많은 이론 공부와 실기 연습이 필요했어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했죠. 다행히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커피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에 다니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못다 한 공부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을 아이들에게 투영하다 보니, 가족 관계가 악화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던 중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여도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커피는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각색의 기호에 맞춘 커피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해요. 미식가처럼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인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하고요. 커피도 유행의 흐름을 따르는 식품이기 때문에, 항상 세계적인 트렌드에 주목하고 그에 맞춘 커피를 추출해야 하죠. 커피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66

포기했던 꿈을 되찾았습니다.

99

공부와 육아 그리고 집안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함께 해내기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 주었고, 근처에서 지내시는 친정어머니께서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죠. 남편은 절 항상 믿고 응원해 줬고, 제 공부 때문에 생긴 많은 빈틈을 메우며 힘을 실어주었어요.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에 비하면 저는 운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4학기 동안 1번의 전공 수석, 3번의 전교 수석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젊은 학우들보다 암기력이 부족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가 어려울 때면 그냥 외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남들이 한두 번 공부하면 익히는 부분도 저는 수십 번을 봐야 했고, 실기 시험에는 더 자신이 없어서 될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기보다는, 무조건 덤벼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셨겠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은 수업 필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는 저보다 더 힘들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공유하고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곤 했어요. 학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 과정에 진학해 더 깊은 공부를 하려 합니다. KBrC 국가대표 선발전 심사위원 준비도 병행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탄탄히 쌓아 올린 지식을 바탕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강의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20대 초반에 포기해야만 했던 꿈에 대한 희망을, 이제야 되찾았습니다. 같은 길을 걷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습자 수기

강지숙(전문학사, 관광식음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병으로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교육자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제 20대는 이것저것 조금씩 배우기만 할 뿐,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접어들어 결혼했지요.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저 자신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존감 하락과 함께 우울증이 찾아왔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었습니다. 포기한 제 꿈을 아이들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자식 교육에 집착했고요. 아이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심하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하길 권했죠. 그렇게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생의 신분을 되찾자 불안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책을 멀리한 40대 중반의 제가 과연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민폐를 끼치면 어찌지? 쓸데없는 시도를 하는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걱정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알아차리신 교수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레 겁먹고 포기한다면,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가정에서 겪은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교실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 말씀에 집중했고 수업 중에 조는 것도, 지각하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그날 배운 것을 노트에 정리하며 시험에 대비했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다루지 못하는 컴퓨터와 씨름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지요. 학우들과 정리 노트를 공유하면서 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첫 학기에 관광식음료 전공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수업을 따라가기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성취해낸 결과에 대한 뿌듯함은 제게 무척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바리스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커피와 로스팅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커피대회에도 참가해 경험을 쌓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등교했습니다.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수석을 넘어 전교 수석을 차지한 것은 그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또한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1급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했고, NCS 강사 자격시험에도 통과했습니다.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실기평가위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KBrC국가대표선발전 심사위원이 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한 교수님께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강의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교육자였던 데다가, 교단에 선 제 모습을 상상하니 무척 행복하더군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왜 잠도 줄여 가면서 힘들게 공부하느냐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수한 성과를 내자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죠. 결과가 좋으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도 않게 되니 아이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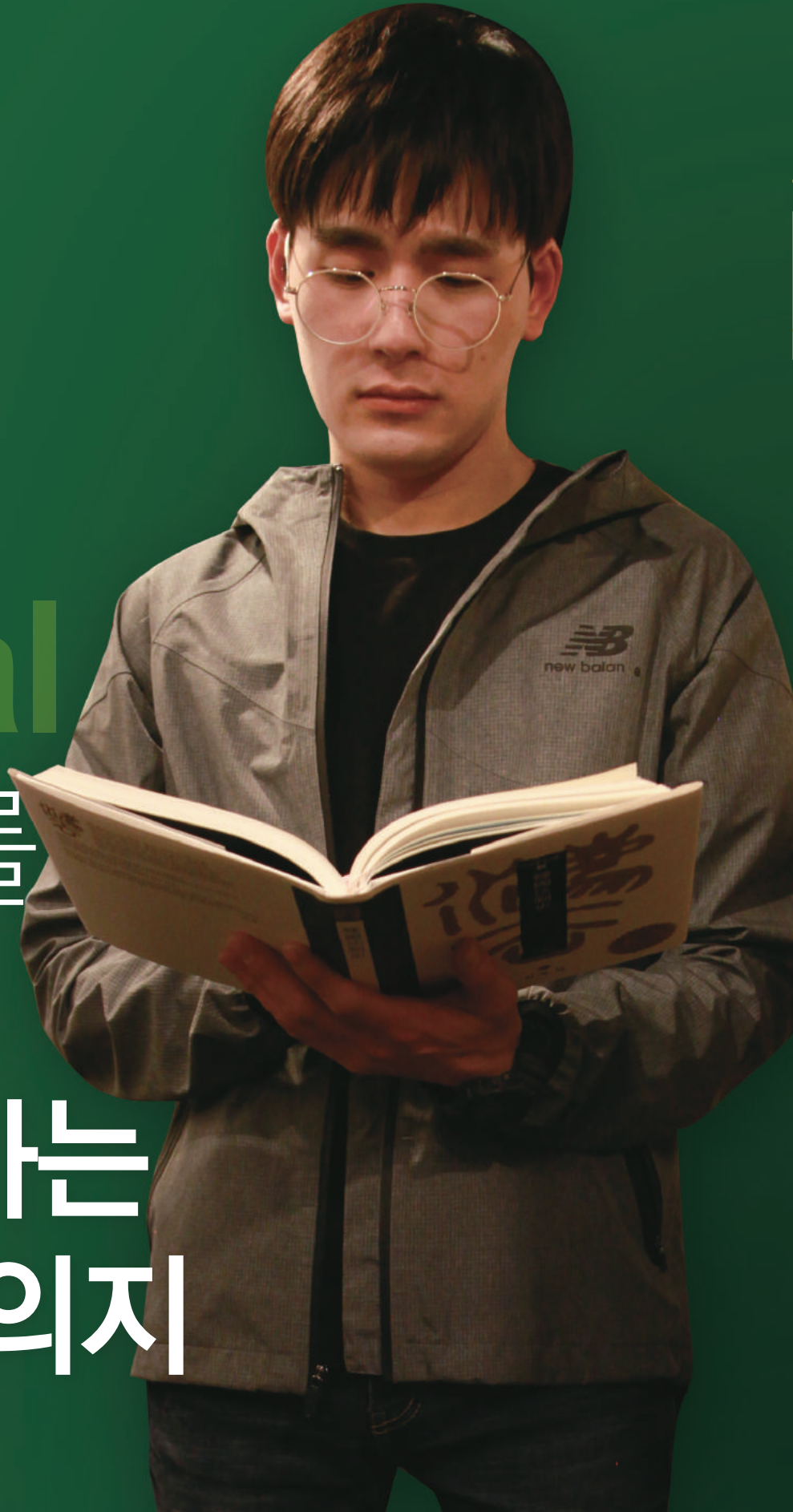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했던 지난 2년은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저는 화제에 올릴 만한 자신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변 상황에 대해서만 대화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저 자신에 관한 것만으로도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며 피곤한 상태일 때도 주변 사람들은 제 표정에 생기가 넘쳐흐른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저는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남편도 제게 자극받아 회사 일과는 별개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말고 노력하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발전해 있을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꿈과 열정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며, 학점은행제는 그 시작에 큰 힘을 실어 줄 겁니다.

Interview

03

Goal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



오롯이 홀로 이뤄낸 위대한 성장

노력한 끝에 출발선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했을 겁니다.
꿈이 있다면,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이동철 (학사, 법학)
독학학위제 특별상



66
의지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99

단돈 30만 원을 들고 상경한 것 스물여덟의 청년.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이동철(26세) 학습자에게는 실제 경험담이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헌법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독학학위제를 선택했다. 자신도 수없이 넘어졌고, 주변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어서지 못한 사람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표한 학위를 취득한 뒤에도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대학 진학 대신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상경한 뒤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자존심인지 자격지심인지, 학위를 취득한다면 독학학위제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는 안 될 것 같았고요. 이미 시작한 일도 있었고, 대학에 가기엔 이미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가끔 후회하긴 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사법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법학 과목 35학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학점을 취득할 방법을 알아보다가 독학학위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값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고, 응시료만 내면 학위 취득 시험을 볼 수 있는 독학학위제가 제겐 하나뿐인 선택지였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실 포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밤새 다잡은 마음도 아침이 되면 이런저런 고민과 상황에 휩쓸려 무너지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법학 계열이었기 때문에 방향하다가도 학사 공부를 마치기 위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헌법학자라는 명확한 목표가 무사히 학위를 취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울 때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내려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본가에 내려간들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그게 가능하겠냐며 비웃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부는 그만하고 어디든 취업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고생한다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독학학위제를 통해 공부하는 동안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지기도 해서,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하냐며 웃기도 했지요. 하지만 언제나 믿어 주고 응원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는 윤동주 시의 구절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긴 실패하는 습관을 이겨내는 것도 큰일이었죠.

법학 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관심 있는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았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이론에 파묻혀 지치기도 했지만, 공부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아가는 것, 제 생각이 이미 알려진 이론이라는 것, 그 이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비판받고, 수정되어 왔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공부를 통해 어떤 점이 성장하셨나요?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마음먹은 것을 스스로 끝마친 것은 처음입니다. 남들 다 있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뿐,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성취일 수도 있지만 직접 선택한 일을 직접 끝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독학학위제를 통해 드디어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고, 앞으로 자신의 삶과 선택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66

내가 선택한 일을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99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헌법학자가 되어 법 관련 연구소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는 대학원 진학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취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하더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한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학위 취득을 통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 번 넘어졌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몇 번 더 일어설 수 있는가’입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 부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이 기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학습자 수기
이동철(학사, 법학)



6년 전, 막 20살이 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후 단돈 30만 원을 갖고 상경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당돌한 말만 남긴 채 말입니다. 서울에서 얻은 방은 28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제 한 몸 누면 딱 차는 좁은 방에서 시작한 낮선 생활이 조금 서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목표한 법학 학위 취득과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우선 생활비와 책을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첫 월급을 받아보니 이것저것 제하고 들어온 돈은 94만 원. 방세, 교통비, 통신비로 35만 원을 사용하고 집에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는 전 괜찮다며, 돈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남은 돈은 약 20만 원. 일할 때는 편의점에서 라면 한 개와 빵 한 개를 먹었고, 일을 마치면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비상금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이걸로 책을 사서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법학 교재는 한 권에 5만 원. 시험 응시료까지 생각하면 돈이 더 드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 비로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으니 책을 사서 공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내가 정말 명칭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 문고사의 도서관영업팀에서 대학교 도서관에 책을 배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초여름의 대학교 캠퍼스가 기억이 납니다. 푸르게 물든 교정에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하게 입었거나 조금 멋을 내 본, 다양한 옷차림의 학생들이 걸을 지나갔습니다. 책을 들거나 가방을 메고, 혼자 또는 여럿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손에는 목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책을 내려 손수레에 담으면서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도망치듯이 입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역한 뒤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설치 작업에서부터 레스토랑, 카페, 고깃집, 편의점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김없이 고시원 방 안이었습니다.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있다면 시급이 올랐다는 것. 책 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데이트한다더라, 유학한다더라, 취업한다더라, 대학원에 간다더라, 어떤 시험에 붙었다더라……. 주위에서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가 부러웠나 봅니다.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니 일은 꾸역꾸역 계속하면서, 난 왜 아직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못 박힌 듯 정체된 채 힘들다는 생각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저를 깨운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 쌓이고 쌓인 먼지가 부패하고 결국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났을 때, 제가 본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마주하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고, 나약한 스스로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내려놓고 자신만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하나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점 외에 일상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결국 독학사를 취득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를 성취했다는 데 의의를 두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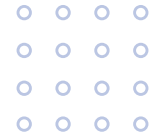
제 인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남들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독학학위제 덕분에 저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독학학위제가 없었더라면 전 지금쯤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업하더라도 독학사는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소중한 꿈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학위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무엇을 하든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20살의 저는 돈이 부족해 책을 살지 말지 고민하면서, 공부가 하고 싶어 울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더 나은 사회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평범한 학사 학위일 뿐이지만, 그 어린 마음이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2019년 학위취득자 학습사례

— 성적우수 및 특별상 수상자 —



66 성적우수 수상자 학습사례



황은아 학사(실용음악학)

학점은행제 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뒤늦게 학점은행제로 실용음악공부를 시작한 뒤 직장과 가정 문제로 잠시 쉬어가곤 했으나 그대로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꼭 공부를 마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마흔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학위 취득 과정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쉽게 해결되어 기뻛고,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며, 저처럼 제2의 기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영희 전문학사(미술)

학점은행제 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꿈★은 이루어진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세가 기울어 돈이 많이 드는 미래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더 여유가 없었지만, 언니의 권유와 지원 덕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과목도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노인 문제에 관심이 생겨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술치료를 배우면서 미술과 사회복지를 접목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끼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디니, 어느덧 공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력을 쌓아 미술 대전에 출품하고 미술 심리 치료도 공부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주은 학사(영어영문학)

독학학위제 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지식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학창시절부터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보다는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곤 했고, 특히 영어는 재미 삼아 인증 시험을 볼 정도로 흥미로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특성에 꼭 맞는 독학학위제 영어영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과과정을 강의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제도인 독학학위제의 특성상, 오로지 혼자 터득하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자료도 검색해 보는 등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기반을 견고히 한 덕분에 최종 합격자 중에서도 상위 3%에게만 수여되는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학자금을 모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이소원 학사(무용학)

학점은행제 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열정으로 바꾼 인생의 방향”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춤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 부모님을 설득했고, 일반 대학이 아니라 스트리트댄스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재학 도중 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싶어 한 달간의 미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뮤지컬 '라이언 킹'을 보고 그런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연출자, 혹은 안무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후 교육기관에서 전공자임을 인정받아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활동했던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아티스트와 교류하며 점점 발전하는 영상 기술들과 안무를 결합해 관객에게 더욱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철호 학사(경영학)

학점은행제 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나이는 배움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 끝에 대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고졸이라는 학력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쉽게 식지 않았고,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어 4년 동안 여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드디어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현재의 나를 비교한다면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배움의 열매는 가정은 물론 회사 운영에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배움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기준 전문학사(항공정비)

학점은행제 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위탁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항공정비에 흥미가 생겨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교육을 마친 후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학점만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어 항공정비 전문학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생처음으로 1등을 하게 되자 그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론과 실습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며 성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건 물론 기능사급 자격증 3개와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면허증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목표한 공군부사관 임관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항공정비 분야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김현유 학사(행정학)
독학학위제 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독학학위제”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저는 수험서를 보던 중 평생교육과 독학 학위제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병행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매료되어 공부를 시작했고 성적우수자로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학학위제를 알기 전의 저는 목표한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수능에 5년을 투자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고 건강이 크게 상해 수술도 받았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고 생각해 공시생이 되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상반된 소망. 독학학위제는 이 소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험생이고, 사회의 틀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지금 자리한 꿈 덕분에 앞으로 활짝 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독학학위제는 그 개화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제도입니다.



66 특별상 수상자 학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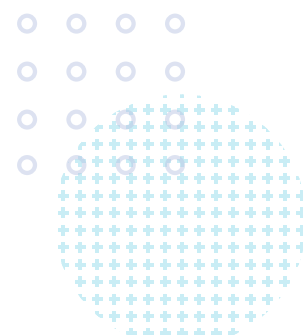
강태영 학사(법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회 교육위원장상)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준 제2의 아버지, 학점은행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어느 날, 손님으로 만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통해 법학 학위를 취득하면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학에 관심이 많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을 준비하던 제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타전공 과목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 관련 답변 활동을 했는데, 그 공로가 인정되어 네이버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제가 법조인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학점은행제 덕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학점은행제는 제2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학점은행제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정 학사(유아교육학)
독학학위제 특별상
(국회 교육위원장상)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유아교육 전공지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독학학위제로 시작한 유아교육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노력 끝에 이론을 숙지하고 나니 어려웠던 학부모 상담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등 직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한 것을 동료 교사들과도 나누며 함께 성장하려 노력하다 보니 보육 교사에서 원장 직무를 맡게 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키운 뒤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독학학위제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저 혼자 아닌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강정은 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새로운 삶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나누다”

자녀를 통해 한 중국인 어머니가 무료로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나서서 도울 수 없었던 자신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로만 살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학위를 받고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초등학생 남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 관련 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가정에만 머물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저는 물론 타인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나눌 기반을 만들어준 고마운 제도입니다.



김미지 학사(미용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삶의 행복을 되찾아준 학점은행제”

미용을 천대하는 시대에 태어나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감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흡수하겠다는 각오로 매 수업에 최선을 다한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한 지식을 토대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미용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하려 합니다. 제게 행복을 되찾아준 학점은행제에 감사드리며 미용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김민지 학사(법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열정만 있다면, 배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던 중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호스피스 병동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법적 결단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며 임상은 한 번에 한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지만, 입법은 국민 전반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에 법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법학 학사 학위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쌓은 법학의 기초를 토대로 법학석사시험을 준비한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기관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는 재가 의료 제도 및 노인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법조계로 나아갈 새로운 삶의 방향은 학점은행제 덕분에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할 열정만 있다면, 배움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김윤범 학사(심리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기회와 성장의 통로, 평생교육”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던 중,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이직하여 청소년 진로 상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다시 학점은행제의 문을 두드려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심리학과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하여 운영 강사에서 상담사로 직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평생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진로교육과 상담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크고 작은 노하우들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정남 학사(심리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전업주부에서 심리 상담 전문가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오 남매 중 둘째 딸로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은 사치였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IMF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주부로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우울감이 밀려들어 시작한 봉사활동 중, 방치된 아이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이론적 바탕이 없는 것에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심리학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하며 상담이론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고, 상담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교육부 소속 상담센터의 상담인력 채용공고를 보고 용기 내어 지원한 결과 합격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가계에 보탬이 되자 자존감도 상승하고 행복감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며, 부모교육센터도 개소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목표가 없었던 저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시간이 없어 배움을 주저하는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박선아 학사(사회복지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네 자녀의 어머니가 되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욱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 평생교육 실천, 기부, 사회봉사 등 매년 과제를 정해 연말이면 실천 여부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장애 아동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결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며, 상담 심리 공부와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임미연 학사(회계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인생은 곧 배움입니다”

살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야간대학에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세무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에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공부를 계속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13년의 공백을 깨고 재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동안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어, 최선을 다해 공부한 끝에 회계학 전공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회계학 전공을 살려 국가기관에서 통계조사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대학원 회계학과에 진학해 더 폭넓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박사학위에도 도전하려 합니다. 인생이 곧 배움이었고, 배움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 학습을 계속할 것입니다.



장재관 전문학사(사회복지)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사회복지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걸음”

대기업에서 행정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사회공헌에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봉사에 관심이 생겨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학점은행제를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면 된다는 각오로 노력한 결과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전공 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우식 학사(부동산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다”

학점은행제는 학업의 시기를 놓친 저 같은 만학도에게 더없이 소중한 교육 제도입니다. 고졸 학력으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중 척추 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아 허송세월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주택관리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던 중 학점은행제의 부동산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며 공부한 끝에 염원하던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쥌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 평생학습의 발판이 되어 주는 학점은행제에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조아라 학사(경영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절망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전환점”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다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르바이트와 경영학 공부를 병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계속해 온 학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 자퇴한 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상황이 원망스럽고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전환점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약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조현준 학사(정보통신공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달콤한 배움의 결실을 맛보다”

오랫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기술학교에서 통신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본 결과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관련 학사 학위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하게 공부하여 통신 관련 자격증 5개를 취득하고, 염원하던 정보통신공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러 면접 기회가 생겼고, 결국 원하던 기업에 입사하여 달콤한 배움의 결실을 맛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기공학사와 기술사도 취득하고 싶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 합니다.



조형숙 학사(사회복지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평생교육”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경력이 단절되어 고민하던 차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전공한 영어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학문적으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대신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부진 학생을 학교 현장에서 멘토링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멘토링을 받은 한 학생은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사회복지의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초진매 전문학사(호텔조리)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차별 없는 기회, 배움을 통한 성장”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식품 개발 분야에서 일하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학점은행제를 통해 호텔조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론수업과 현장 실습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조리 관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조리’라는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으며 고민하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적인 제제도 학업의 기회를 준 학점은행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명숙 학사(심리학)

학점은행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만인을 위한 배움의 기회, 학점은행제”

저는 뇌성마비 환자이며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 20살이 되어 가까스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부모님의 병환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0여 년 후, 50살이 되었을 때 찾아온 기회 덕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학원에도 합격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학점도 좋지 않고 자격증도 많지 않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몸으로 현재에 이른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장애인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할 것이며, 말년에는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태영 학사(컴퓨터과학)

독학학위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할 기회”

고졸 학력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 장벽을 맞닥뜨렸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폭도 좁고 취직한 후에도 차별 대우를 받아 이를 극복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독학학위제를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 3시간씩, 주말에는 무조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공부 습관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독학사를 취득하자 차별도 사라지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학사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한 발 더 전진할 기회입니다. 독학사 취득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앞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위 내용은 지면 관계상 수상자의 사례를 일부 발췌·요약하였습니다.